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5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 18.(화) 오후 1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5. 18. (화)	담당부서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담당과장	전동욱 과장(02-2100-1373)	담 당 자	김정호 사무관(02-2100-137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

- 업계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영향 및 활용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활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RCEP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해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선 5.18일(화)에는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5.18일 간담회 개요 】

- **회의명** : RCEP 국내절차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 **일시·장소** : 5.18(화), 16:00~17:30 /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및 제조업 주요 협회 (약 30명)

- (협회) 무역협회,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판유리창호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진흥회, 등

□ 이 간담회에서 ❶**산업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❷**업계에서는** RCEP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와 對정부 건의 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❶ 산업부에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준동의 요청)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을 설명하였으며,

* (제13조: 비준동의 요청)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통상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사항의 제출 필요

❷ 업계에서는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확대 등 **RCEP 발효시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추가로 농수산분야 업계 간담회도 개최**하여 관련 분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RCEP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국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호 사무관(☎02-2100-13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RCEP 개요

□ **(협상 경과) '12.11월 16개국 협상개시 선언,** '13.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RCEP 장관회의** 등 개최

○ **제3차 RCEP 정상회의시(태국) 협정문 타결(20개 챕터)을 선언**하고, **'20년 RCEP 정상회의에서 서명**키로 합의 ('19.11.4)

* 당시 시장개방분야가 未완료 되었는바, '20년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명 추진합의

○ '20년 코로나에도 불구, 10차례 수석대표, 3차례 장관회의 등을 화상으로 개최하여 모든 이슈를 타결하고 제4차 RCEP 정상회의시 서명 ('20.11.15)

RCEP 추진 배경

○ '97년 아세안+3(韓·中·日) 정상회의가 정례화 되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진행, '11년 아세안 정상회의시 **아세안+6(韓·中·日+호·뉴·인)가 참여하는 RCEP 추진** 결정

○ 당시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RCEP 참여국들의 비중과 위상이 지속 강화**되고 있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참여 결정

□ **(의의)** 코로나 위기, 보호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자유주의 확산** 도모

* RCEP 對세계 비중('19 IMF/'18 KITA) : GDP 25.6조불(30%), 인구 22.6억명(30%), 교역 2.2조불(12%)로, 무역규모 비교시 USMCA(1.3조불, 6.8%), CPTPP(0.4조불, 2.2%)보다 거대

** FTA 경제영토 기준 : ('20.10) 78% → (RCEP 발효시) 83%

○ 對아세안 상품 시장 추가개방(자유화율 92~95%),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속화 기대

*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교역 30배, 투자 40배,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

○ 아울러, 美·中에 치중된(우리 수출의 39% 차지) 우리의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도모**

*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Google & Temasek) : ('16) 74억불 → ('25) 878억불